

EU, 사료첨가제의 안전성 강조

2004년 11월 9일 벨기에 겔(Geel)에서 EU 집행위원회 산하 연구소 (Community Reference Laboratory; CRL)가 문을 열었다. 집행위원회 산하 연구소는 사료 첨가제 안전에 대한 인증 허가를 위한 기관이다.

사료 첨가제란 가축의 생산성 향상이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료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앞으로 사료 첨가제의 안전성에 대한 인증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유럽식품안전청(EFSA)에서 사료 첨가제에 대한 검사를 받고, 집행위원회 산하 연구소로부터 사료 첨가제 포함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취하는 분석 방법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사료 첨가제에 대한 연구를 할 집행위원회 산하 연구소로는 겔에 있는 EU 집행위원회의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re)인 IRMM(Institute for Reference Materials and Measurements)이 지목되었다. IRMM은 EU 집행위원회의 공동연구센터의 7개 기관 중 하나이다.

IRMM의 목적은 EU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유럽의 공통적이고 믿을 만한 평가 체계를 확립하는 것으로 IRMM의 최우선 목표는 이런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 신뢰도 제고는 국제적으로 수용가능한 방법의 개발, 생산, 보급으로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수용 가능한 방법은 평가 방법, 실증된 방법, 측량 방법, 각 연구소간 비교, 훈련 제공 등을 포함한다.

EU 연구위원(Research Commissioner)인 루이스 마이클(Louis Michael)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인간과 가축의 보건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거리입니다. 사료 첨가제 인증에 대한 새로운 제도는 그 목표를 달성하고 조사하는 데에 있어서 커다란 능력을 요구합니다. 저는 IRMM이 이런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EU 보건·소비자 담당 집행위원인 데이비드 번(David Byrne)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가축 사료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제도 강화는, 최근 EU가 시행하는 식품 유통에 대한 통합 접근을 시행하기 위한 기초 작업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려면 이런 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인식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료 첨가제를 사용하는가?

전통적으로 가축에게는 풀이나 곡물과 같은 사료를 먹여왔다. 그러나 근대 농업에 들어와서는 인공 사료가 개발되었다. 이런 인공 사료는 곡물을 재료로 하거나 사료 첨가제와 혼합된 가공 재료 등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사료 첨가제는 가축의 보건과 생산성 증진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런 첨가제의 종류에는 비타민이나 미네랄과 같은 영양 첨가제, 신경관련 첨가제, 방부제와 유화제와 같은 기술적 첨가제 등이 해당한다. 현재 EU가 법제화하여 인증 허가를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하려는 사료 첨가제의 종류는 700여 가지이다.

인증 허가에 필요한 안전성 평가

사료 첨가제 관련 이해 당사자들은 사료 첨가제를 시장에서 팔기 위해서는 판매 이전에 인증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인증 허가를 받으려면, 각

당사자들은 해당 사료 첨가제가 인간의 건강이나, 가축 보건, 환경에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유럽식품안전청은 과학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할 것이며, 그 동안 집행위원회 산하 연구소에서는 사료에 어떤 첨가제가 들어갔으며 음식에는 얼마만큼의 잔여물이 남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평가를 시행할 것이다.

식품에 잔류하는 사료 첨가제를 분석하는 방법은 가축에게서 얻는 음식에 대한 잔여물 상한 기준(maximum residue levels)을 정할 때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다. 집행위원회 산하 연구소에서는 인증 허가 대상인 첨가물에 대한 참고 표본을 정하고 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집행위원회 산하 연구소는 EU 회원국의 각 연구소 협회에서도 도움을 받을 것이다.

집행위원회 산하 연구소의 설립은 규정에 명시된 사료 첨가제 인증 허가 체계의 현대화 방법 중 하나이다. 언급한 규제는 2004년 10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적용된다. 그리고 사료 첨가제의 인증 허가와 관련해서 남아 있는 90여 개의 신청도 2004년 안에 집행위에서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 유럽연합 보도자료 데이터베이스
(유찬희 ruledes@naver.com 019-251-8793 지역아카데미)